



[산업]  
재계  
4050 총수 시대  
연말 통큰 조직개편  
06

5일 Market Index	
→ 코스피 2267.52 (0.00)	→ 코스닥 773.70 (0.00)
↑ 금리 (연고세 3%) 2.08 (+0.02)	↑ 환율 (원/달러) 1130.40 (+0.50)

구독료: 월 15,000원 / 1부 8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(02)721-9841

metroseoul.co.kr

2018년 10월 8일 월요일

취업난 뚫은 2030, 전·월세 전전 4050

## 소득있는 무주택자 내집마련 어렵다

신혼부부에 쏠린 부동산정책  
임대주택도 취준생 위주 지원  
무주택 중년도 혜택 제한 돼



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.

‘사회초년생 임 모씨, 직장생활 6년차 독신 김 모씨, 20년 무주택자 황 모씨 부부’.

이들을 위한 집은 어디 있을까. 청년 또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정책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. 정부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주거 혜택을 확대하고 있어서다.

20~30대 사회초년생은 임대주택조차 문턱이 높고, 40~50대 중년 부부는 십 수 년을 전·월세로 전전해도 ‘내 집 마련’ 꿈을 이룰 기회가 적다. 무주택 서민임에도 소득이 있고 직장 생활을 오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 지원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.

### ◆ 취업난+주거난... '청년은 옴니다'

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정부가 위례신도시(508가구)와 평택 고덕(891가구)에 신혼희망타운을 첫 분양한다.

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주변 시세보다 20~30% 정도 저렴하게 분양하는 공공주택이다. 자금 여건에 따라 분양·임대형을 선택할 수 있고 1%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핵심정책으로 꼽힌다.

정부는 지난해 말 ‘주거복지 로드맵’을 통해 신혼희망타운을 전국에 7만 가구 공급하기로 계획했다. 9·21 공급 정책에서 3만 가구 더 늘리기로 했다.

아홉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주거 지원 혜택이 신혼부부에게 쏠리자 20~30대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. 사회초년생 등 나이가 어린 청년이나 30대 초중반의 독신 가구에 대신 주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.

신한은행의 ‘2018 보통사람 금

용생활 보고서’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은 평균 1.1년 동안 취업 준비에 월 평균 29만원을 쓰고, 사회초년 직장인은 학자금대출 등 월 평균 61만원의 빚을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취업난을 겨우 뚫고 나와선 주거난에 허덕인다. 국토부의 ‘주거실태조사’ 결과를 보면 2016년 기준 청년(만 20~34세)의 자가점유율은 19.2.%로 평균(57.5%)에 한참 못 미친다. 아울러 지하·반지하·옥탑의 거주비중(3.1%)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1년 반 만에 취업에 성공한 임 모씨(27)는 “광주에서 상경해 취업 준비하는 동안 서울 외곽 지역의 저렴한 옥탑방과 고시원을 전전했다”며 “아르바이트도 못할 때면 부모님이 월세를 내주셔서 민망했는데, 정작 취업해서도 집값이 너무 비싸 또 비슷한 곳에서 살게 됐



가을에 핀 장미

7일 오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2018 세계정원박람회를 찾은 시민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. /뉴스

다”고 말했다.

이어 그는 “행복주택 등 임대주택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위주로 물량이 많고, 아파트 청약은 가점제라 84점 만점에 10점도 안 나오는데 당첨이 되겠느냐”며 “주위에

결혼한 형, 누나들은 신혼부부 혜택이 많아졌다고 좋아하는데 취업 초년생은 오히려 그런 혜택을 기대도 못한다”고 불만을 토로했다.

(3면에 계속)

/채신화 기자 csh9101@metroseoul.co.kr



## 신동빈, 석방 사흘만에 출근... ‘뉴롯데’ 정상화 탄력

〈롯데그룹 회장〉

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석방과 동시에 경영 일선에 복귀하면서 해외 투자와 지주사 전환 등 그룹 내 주요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.

신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. 약

8개월간 수감생활도 지칠 법도 하지만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는 8일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.

신 회장은 기록적 폭염이 이어진 지난 여름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더위와 사투를 벌였다. 이때문에 체중이 구속 전보다 10kg가량 빠진 것

로 전해졌다.

그러나 8개월 총수 부재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서 멈춰선 그룹의 대규모 투자 등 경영 현안을 챙기기 위해 곧장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분석된다.

신 회장은 출근과 동시에 황각규 부회장을 비롯해 4개 사업 부문(B

U) 부회장단을 주축으로 경영 현안을 보고 받고 회의를 할 예정이다. 업무보고에는 총수 부재로 밀려 있던 그룹 차원의 각종 투자 등 그룹 현안이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.

먼저 투자 규모가 약 4조원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투자 결정과 동남아시아 유통 및 제과

업체 인수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.

또한 중국의 사드(THAAD·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) 보복 이후 중국 롯데마트 사업 매각 등 해외 사업 전반도 재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.

롯데지주 완성을 위한 호텔롯데 상장과 금융 계열사 지분 처분 등도 풀어가야 할 과제다.

(3면에 계속)

/박인용 기자 parkiu7854@

66th ANNIVERSARY  
10월 9일  
한화그룹 창립 66주년

## 66년을 지켜온 신념이 내일의 더 큰 불꽃으로 이어집니다

불꽃이 또 다른 불꽃으로 이어지듯  
66년을 묵묵히 지켜온 혁신의 신념은  
내일의 더 큰 불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
모두를 위해 도약하는 한화가 되겠습니다

함께, 불꽃처럼